

광주 소비자물가, 전국 특·광역시 중 '최고'

호남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동향
전년비 5.1% ↑ ... 전국은 4%대로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급등 원인
전남 4.9% ↑ ... 생활물가 5.5% ↑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갔지만, 광주지역의 경우 5.1% 상승하며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6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0.43(2020년=100)으로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했다.

전월(5.3%)보다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4.8% 오른 서울·대구, 4.7% 상승한 인천·울산 등을 모두 제치고 특·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4.9%로 떨어지며 상승폭이 줄어드는 기세를 보였지만 1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다시 5%대로 올랐다. 채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6.1% 상승했다.

전남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70(2020년=100)으로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0% 보합,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했다. 이 같은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은 30%대에 달하는 공공요금 상승률과 먹거리, 외식비 인상 등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광주지역 도시가스는 전년 동월 대비 35.7% 올랐다. 전기료는 29.5%, 지역난방비는 34.6% 상승하는 등 공공요금의 고공행진이 꺾이지 않고 있다. 전남지역 역시 도시가스 34.5%, 전기료 29.5% 각각 상승했다.

또 빵 18.1%, 고등어 31.9%, 수입쇠고기 12.4%, 스낵과자 15.3%, 커피 13.1%, 돼지고기 3.4% 등 광주지역 식료품 상승세도 만만치 않았다. 맥주 10.5%, 소주 14.5% 등 주류 물가

도 상승했으며 돼지갈비 10.7%, 생선회 6.1% 등 외식물가 상승도 한몫했다.

출하량이 감소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자 가격도 급등했다. 광주는 파프리카 50.5%, 풋고추 42.4%, 고등어 5.1% 등이 상승했으며 전남은 풋고추 37.9%, 오이 26.6%, 양파 26.6%, 파 13.2%, 당근 52.9%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올랐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하순 한파 피해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2월 일부 채소류 가격이 다소 높지만, 3월 기상 여건이 호전되고 봄철 생산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국제유가

나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지만, 이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지난달에 비해 상당 폭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전월보다 줄어든 전국 물가 상승폭이 지난해의 기름값 폭등 등 기저효과로 상당 수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물가가 연중 목표수준 2%를 웃도는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둔화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향후 물가 경로 상 국제유가 추이, 국내의 경기흐름, 공공요금 인상 폭 및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은행, 13기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

19일까지 30여명 선발

광주은행은 오는 19일까지 대학생 홍보대사 13기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3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30여명을 선발한다.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e-mail(1021982@kjbank.com)로 지원하며, 최종 선발된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단체복을 지원하고, 우수 팀 및 홍보대사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13기 홍보대사는 4월 말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광주은행 사회공헌활동 참여와 브랜드 홍보, 유스(Youth) 고객

과의 소통,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뉴미디어를 활용한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의 특색 있는 아이디어와 젊음의 에너지로 광주은행 ESG 활동의 서포터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임현열 ESG공헌부장은 "광주은행 브랜드 강화와 더불어 지역 대학생들에게 직장체험 및 다양한 대외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는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기를 맞는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는 현재까지 총 400명의 대학생 홍보대사 수료자를 배출함으로써 브랜드 홍보와 다양한 직장체험 및 대외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

호반·라인·해동건설 '위파크 마크공원' 분양

서구 금호동 일원 917가구 공급
13~15일 특별공급·1, 2순위 청약
전 가구 남향·커뮤니티시설 다양

호반건설과 라인건설, 해동건설이 광주 서구 금호동 산109번지 일원의 '위파크 마크공원' 분양에 나선다.

위파크 마크공원은 지하 3층~지상 20층, 15개동, 총 917가구 규모다. 전 가구를 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 84㎡와 135㎡의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했다. 타입별 가구 수는 84㎡A 373가구, 84㎡B 159가구, 84㎡C 47가구, 84㎡D 114가구, 135㎡ 224가구다.

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청약, 15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



다. 당첨자 발표일은 21일이고, 계약 기간은 4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월이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광주·전남 거주자다.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위파크 마크공원 분양 관계자는 "상무지구와 금호지구를 연결하는 중심 입지에

숲세권 프리미엄을 갖춘 '위파크 마크공원'을 공급한다"며 "소비자 선호도 높은 중대형 특화평면에 생활 인프라도 우수해 추후 금호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위파크 마크공원은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에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용이하다. (일부타입은 제외)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며, 주부의 가사 동선을 배려해 주방 가구를 배치했다. 또한 드레스룸, 다목적실,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도 제공한다. (타입별 상이)

견본주택은 서구 삼촌동 956-7에 위치한다. 시공은 호반건설, 라인건설, 해동건설이 맡았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경제 마스터즈' 운영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 한은 경제 마스터즈(이하 경제 마스터즈)'를 선발·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졸업시까지 2학기 이상 남은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 재(휴)학생이다. 4학년 1학기 재학생의 경우 신청 가능하나 4학년 2학기생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자중 38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대학생은 경제강좌 수강, 산업

현장 방문 견학, 자체 토론 대회 참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경제 마스터즈 최종 이수자에게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명의의 이수증, 기념품 등이 주어진다.

경제 마스터즈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가지원서를 작성해 오는 20일까지 온라인(gwangju@bok.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광주국세청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성료

광주지방국세청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6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와 광주국세청 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훈·포장과 표창장 전수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서 성실납세로 국가 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납세자, 국세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 유공공무원 포상과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기념패를 전수하며 직원들의 노



고를 격려했다.

운영석 청장은 축사를 통해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신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며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고 공

정한 세정 집행과 납세 홍보를 통해 '국민을 위하고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는 국세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 주식회사 와이제이씨가 동탑산업훈장, 두영실업 주식회사가 산업포장, 주식회사 세림전자, ㈜죽암엔씨가 대통령 표창, 유한회사 신정주포장이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으로 표창을 각각 전수 받았다. 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13명, 국세청장 표창 16명,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 18명, 세무서장 표창 24명 등 총 76명에게 광주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표창장을 전수 및 수여했다.

최권범 기자

노동 칼럼

A씨가 일하는 사업장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쉬는 곳이다. 이번 삼일절이 수요일이라 A씨 사업장의 경우 징검다리 휴일이 되는데, 2월28일 화요일에 전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4일을 연속으로 쉬기로 했다고 한다. A씨는 물론 긴 연휴가 생기는 것은 좋지만, 선택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겼다.

A씨 사업장에서 사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라는 제도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같음해 특정한 날에 노동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라 A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2월28일이라는 특정한 근로일에 노동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하지만 A씨 사업장의 경우 이날 시행한 유급휴가대체가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A씨 사업장은 개별 노동자와 합의를 통해 시행했기 때문이다.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에서 주요한 지위와 역할을 갖는다. 사업장에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대표 또는 대표권 위임받은 자(주로 노조 지부장), 없다면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해야 한다.

A씨 사업장은 과반수 노동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를 별도로 선출해야 하는 것이다.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전체 노동자에게 대표권 행사 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당연히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며, 거



이연주
공인노무사

수, 기립, 투표, 용지 서명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장급 노동자를 근로자대표로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내부 직원들에게 서명 용지를 회람하게 하는 등의 방법은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A씨의 사업장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

도 있다. (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만약 A씨가 이러한 대체제도 사용에 불만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이의제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추후 적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와 서면합의를 하고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시행한다면, 대체를 반대한 노동자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처럼 근로자대표에게는 큰 권한이 있으며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정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거나,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사용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바지킴이상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